



박근혜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분류인력 4000명 증원 '시간선택근무' 업무량↓

CJ대한통운 재발방지대책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
“기사님,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
경영진, 상황 엄중히 받아들여
모든대책 확실히 시행토록 할 것”



박근혜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택배 업무로 고생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기사님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8층. 박근혜 CJ대한통운 대표가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0.4%의 택배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최근 택배기사 사망 등 업계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는 “CJ대한통운 경영진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의 모든 대책은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내놴다.

우선 택배기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택배분류인력 1000명을 포함해 총 4000명을 택배터미널에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회사측은 이를 위해 매년 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정태영 택배부부장(부사장)은 “지원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 시작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간선택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택배가 몰려 물량이 초과되는 경우엔 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개별 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막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내에 택배기사 100%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택배 분류 자동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동분류장치인 휠스터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추가로 구축한다. 회사측은 현

재 처리하는 물량 가운데 소형택배화물 비율이 90% 정도여서 MP를 설치할 경우 전체 작업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기존에 지급하던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경조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표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택배기사, 물류센터 작업자 등 택배 업무 관련 사망자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과로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9명이다. 이달 들어서만 3명의 택배기사가 숨졌다.

가장 많은 택배기사가 소속돼 있는 CJ대한통운의 경우 올해에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도 서울 강북구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가 지난 8일 배송 업무를 하다 호흡 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A씨는 20년 가량 택배업무를 한 경력자로 하루 평균 400여 개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에도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가 숨졌다. B씨는 올해 나이가 스무살이었다.

또 같은 날엔 (썬한진 소속의) 30대 택배기사 C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서울 동대문 지역에서 배송업무를 했던 C씨는 앞서 동료에게 과중한 택배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긴급 생계지원금 다 준다더니...

무등록점포 상인 ‘엄격기준’에 지원금 포기

코로나 전·후 비교소득 입증못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점상
매장처럼 월별매출 집계 어려움”

지난 19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자금’에 대한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 무등록점포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한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 무등록점포 상인들은 긴급 생계지원금 접수를 위해 동사무소 등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렸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을 거치면 바로 신청이 가능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 전후 비교 소득 25%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하는 지원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상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100만 원을 일괄지급하는 새희망자금과 달리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1인 가구는 최소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다. 4인 가구 무등록점포만이 새희망자금과 같은 1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문제는 무등록점포가 전국 시장 6곳 중 1곳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총 점포 수 25만개 중 4만3000여 개가 무등록점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수치는 없지만,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무등록점포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지방이나 소규모 비상설 시장에 위치하고 있다. 고령 상인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유모씨는 “새희망자금 신청도 안 된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대신 이걸 준다는 뉴스를 봤다. 그런데,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노점상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사람들처럼 월별 매출이나 이런 건 잘 집계 안 된다”고 한탄했다.

유 씨의 말처럼 무등록점포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월별 매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월 소득과 과거 월 소득을 각각 파악해 감소 여부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정보 공개, 국제동의 얻어야”

이낙연, 도미타 고지 日대사 만나
日 “韓의 2가지 요청 받아들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미타 일본대사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도미타 대사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이 대표의) 두 가지 요청을 받아들일 것”고 답했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도미타 대사가 “앞으로도 한국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며 한·일 양국 간 교류 및 항공로 운항 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를 희망한 사실도 소개했다. 다만 한·일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 규제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한·일 교류 재개 등은) 경제적 조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알다시피 그 문제는 우리의 강제징용(배상)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그게 먼저 해결되거나, 따로 해결되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간 교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성에는 이 대표

와 도미타 대사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가 었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나 역사,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그 무엇에서 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하는 길 이외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사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저도 아주 많이 공감한다.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스가 총리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계기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첫 출하 햅쌀 코로나19 의료진에 전달

농진청 ‘알찬미’ 이천병원에 나눠

농촌진흥청은 이천시와 함께 국민 참여로 만든 ‘알찬미’ 햅쌀을 22일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 전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첫 출하한 햅쌀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알찬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경기도 이천시, 이천농협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로

개발한 고품질 벼다. 경기도 이천시는 오랜 기간 재배해 왔으나 잘 쓰러지고 병해충에 약한 외래 품종 ‘추청벼’를 2022년까지 국내 육성 알찬미 품종으로 100% 대체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에는 국립종자관리소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종자 생산을 위탁해 안정적으로 알찬미 종자를 공급받아 재배 면적을 6500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947ha 면적에서 생산된 알찬미는 ‘임금님표 이천쌀’ 상표로 이달 하순부터 양재동 하나로 클럽, 홈플러스, 온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이 지난 14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실증시험재배 단지에서 열린 ‘벼 드론직파 수확 연시회’에서 수확한 벼를 탈곡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라인 쇼필름 등에서 본격 출하된다. /한용수 기자 hys@